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공동체학교 1학기말 일정  
 꾸러기학교: 여름여행 12일(화)-13일(수) 강화도. 20일(수) 종업식  
 어린이학교: 15일(금) 종업식  
 멋쟁이학교: 종강여행 12일(화)-14일(목) 태안. 15일(금) 종강
- 제67기 공동체지도력훈련 .  
 23일(토) 오후 2시부터 25일(월) 저녁 10시까지. 숙박은 주일(24일) 저녁  
 에만 합니다.
- 한승현 청년이 11일(월) 군복무를 위해 입대합니다.
-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교장단 긴급 모임. 12일(화) 오전 11시.

제 39 - 28 호

2022년 7월 10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 감사 )  
 조향민 · 최신혜 집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위기냐, 기회냐!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화창한 주일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보다도 분주하지만 그래도 주일이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신발을 벗고 예배당에 들어서서 3살 아들에게 준비해온 헌금을 건넵니다. 집에서부터 준비해 와서 구겨질까 하는 마음에 찬송가에 끼워둔 헌금.. 그러나 아뵘싸!!!! @.@

아들의 주일헌금 오천원을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찬송가에 끼워져 있는 것은 오만원권 한 장이었습니다. 헌금을 가져가려는 아들의 손을 붙잡는 순간! 잠시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오천원과 오만원은 너무 비슷해서 안 되겠어..' '오천원과 오만원은 차이가 썩 있는데...'라는 생각과 함께 그 날 장을 보게 될 아들의 기저귀... 여러 가지 반찬과.. 갖가지 일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던 중 오래전 기억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이 일이 있기 더 오래 전,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다니던 대학교 시절의 일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학교에는 학부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대원과 여러 일반대학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시기엔 누구나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신대원에 다니고 계셨으며 그 당시 그분의 나이가 50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웃은 매일 같은 웃만 입으셨던 것으로 기억되고 옷 위에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조끼를 입고 다니셨습니다. 마른 체구셨지만 발걸음은 늘 가벼워 보이고 표정은 언제나 밝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정도이며 가끔 눈이라도 마주치면 고개만 숙여 인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이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주일 오후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의정부역을 출발한 지하철이 서울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저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하는 마음에 돌아본 곳에는 그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라는 짧은 말씀을 되풀이 하며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어떻게 해야 하지?! 저 전도사님이 날 알아보실까?! 옆에 가서 거들

어야 하나?!' 여러 생각들이 뒤죽박죽 얽혀 있을 때쯤 휴일을 맞아 산행을 다녀오는 일행 중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나한테 10만원만 줘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지!!" 순간 지하철 안은 조용해졌고, 제 가슴은 쿵쿵쿵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 제 주머니 안에는 일주일 동안의 학교생활과 교제 구입을 위한 돈이 정확히 딱! 10만원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주머니 쪽으로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손만 보는 것 같아 얼른 뺐습니다. 또 다시 손을 주머니 쪽으로 가져가다가 이 10만원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서 다시 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또 다시 그 아저씨의 말이 들렸습니다. "거봐!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예수를... 하하하하!!!" 함께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한 베드로의 심정이 이랬을까요?! 그 때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한 참이 지난 지금도 제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 삶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때에는 몰랐습니다. 오래전 그 일이 그저 창피하고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기억이란 생각만 있었는데 12년전 당황스러웠던 오만원의 등장으로 인해 이것은 나에게 닥친 위기(?)가 아니고 또 다른 기회였음을 알게 되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기회를 택하는 것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아들의 헌금도,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던 전도사님의 일도 이제는 오래전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 와 기회를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고 힘든일일 수 있지만 분명 마음은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오늘도 우리 각 사람과 사랑방공동체에 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위기냐, 기회냐!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회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

## 한주간의 말씀

“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 민수기 11장 3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민수기 30장

제목 :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키십시오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12 430 453

####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 |                 |   |                |
|-----------------|---|----------------|
| 1~2절 서원의 일반원칙   | / | 3~5절 어린 여자의 서원 |
| 6~8절 결혼한 여자의 서원 | / | 9절 과부와 이혼녀의 서원 |
| 13~15절 남편의 의무   | / | 16절 맺는 말       |

#### 2. 내용의 의미(Why)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약속의 대상으로 여기시며, 자신은 낮추시고 우리는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가정의 권위를 인정해주셨습니다. 공동체 내의 권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질서를 주셨습니다. 30장의 말씀은 공동체 2세대들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정복사업을 앞두고서 공동체의 질서를 확인시키셔서, 먼저 안정하도록 하셨습니다.

#### 3. 의미의 적용(How)

- ① 하나님과 맺은 서원은 반드시 지키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다.
- ② 가정 공동체에서 서로 협력하자.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자.
- ③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서 공동체를 안정시키자. 공동체의 질서를 인정하고 함께 참여하자.

## 운동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3년 만에 사랑방 탁구대회가 열렸고 탁구동아리(?)들도 이날부터 탁구를 다시 시작했다. 탁구는 실내에서 탁구대와 라켓, 공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실용성 스포츠다. 본래 테니스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게 한 것에서 유래한다. 탁구는 공의 최대 속도가 여타 종목의 속도보다 빠르다. 상대의 테이블 끝까지 2.7m밖에 되지 않으므로 공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08초라는 극히 짧은 순간이다. 그래서 공의 움직임에 시선을 집중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탁구는 눈과 손의 반사 신경을 자극해 정신적 집중력을 높이고 전략과 전술을 펼치게 된다.

탁구는 공의 속도, 공의 회전, 공의 위치 이 세 가지 특성이 중요하다. 탁구 테크닉은 순간적인 근육의 움직임과 판단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풀어내는 기술이다. 공의 위치에 따라 눈동자를 빠르게 움직이면 시력이 좋아지며, 근육은 긴장과 팽창이 반복되면서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여러 요소가 복합된 상황에서 민첩한 판단과 대응력은 현대생활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보통 체구의 성인이 1시간 탁구 운동을 하면 평균적으로 270여 칼로리의 열량이 소모된다고 한다.

탁구는 단순히 손과 발로 하는 경기가 아니라 고도의 두뇌 플레이가 요구된다. 상황 분석과 전술을 순간적으로 신경에 전달,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뇌가 움직여야 한다. 이는 뇌의 혈액순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므로 탁구를 즐기는 사람에겐 알츠하이머(치매)가 드물다. 탁구 공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상대나 팀 플레이어의 반응에 따라 팔과 다리를 비롯한 모든 신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조정능력이 향상된다. 젊어서는 축구 등 많은 운동을 즐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제한이 생겨 탁구를 즐겨한다. 개인적으로 잡기에 능하지 못해 결혼하고 장모님께 화투를 배워 명절이면 선수로 출전 중인데, 우리 부부도 장인 장모가 되어 명절을 맞으면 세 자녀 부부(?)들과 탁구시합을 하면서 깔깔대는 게 소소한 소망이다. 나중에는 손주들과도 탁구를 치고 싶다.

모든 식구들이 운동을 즐기면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중에 탁구를 모두 좋아해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화투를 하지 않고 탁구를 통해 성숙하고 행복한 놀이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운동은 몸은 물론 정신과 영혼까지 치료하는 성스러운 행위다.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운동에서 구원을 찾아라. 운동을 통해 다른 실제적인 일들이 베풀지 못하는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96 : 1-3  
20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이사야서 55 : 6-7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449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불평을 그치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 정재훈 목사

민수기 11 : 1-15  
436

설교자  
공동체

###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29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516(1)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병우 정영옥 / 봉헌위원 : 김영화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은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 불평을 그치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다베라 사건.    시내산에서 행군을 시작한지 사흘만에 주님께서 들으시는 중에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불을 내리셔서 진의 가장자리를 불타게 하셨습니다. 다급해진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의 기도로 불이 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커져가는 불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는 중대한 잡족들이 음식에 대한 불평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제기한 불만은 이스라엘 진 곳곳으로 퍼져나가 모든 장막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불만의 소리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압박해서 영적으로 탈진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불만은 멈추어질 수 있을까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불평을 하는 자들은 불편한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다른 맥락과 이야기들을 다 무시해 버립니다. 단지 음식 때문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경험 앞에서 이런 방식은 매우 효과적으로 먹힐 때가 있습니다. 불평을 그치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기환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월요일 오전 드디어 꾸러기밭에 물이 좀 빠져서 장갑을 끼고 마실 물을 채겨 풀을 매려 나갔습니다.

막 꼬투리가 생긴 콩이 장맛비에 쓰러져 잎이 다 녹아버렸고 옥수수는 이리저리 기울어져 자라있고 대추토마토 밑동쪽에는 하얗게 진딧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빨갭게 익은 토마토 몇 알이랑 옆으로 줄기를 뺐어 새로 뿌리를 내린 딸기를 보며 힘을 내서 풀을 뽑아봅니다. 더우면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들어와 풀을 맵니다. 이리저리 줄기를 뺐는 딸기 순을 조심스레 피해가며 제법 그럴 듯하게 풀을 매고 발답게 가꾸어냅니다. 빗물을 왕창 먹고 터진 대추토마토를 한 알씩 따서 먹고 딱 한 알 익은 딸기는 따서 요리선생님 드린다고 신나서 우르르 주방쪽으로 갑니다. 나누어 먹기 위해 밭을 가꾸겠다는 첫 마음을 기억하는 멋진 꾸러기들입니다.

목요일 오전에 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일찍 집을 나서 꾸러기차에 탄 ㄱㅇ이가 맨 밭에 장화를 신고 왔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ㅇㅇ이가 양말 한 켤레를 챙겨옵니다. 수목원 입구에 내린 ㅇㅇ이가 머리를 안 묶어 덥다고 하니 머리를 줄줄이 묶은 ㄱㅇ이가 머리에서 고무줄을 하나 풀어 ㅇㅇ이에게 빌려줍니다. 올해 세 번째 수목원으로 산책을 나온 꾸러기들이 지난번에 가본 길과 앉아서 거저리에베레를 먹던 벤치, 더위를 피해 잠시 쉬던 벤치를 기억합니다. 지난번에 전향옥 선생님과 걸터앉아 사진을 찍었던 자리라며 이번에는 정승희 선생님과 사진을 찍겠다고도 합니다. 계속 가지만 늘 달라지는 풍경을 봅니다. 걷는 길도 조금씩 달리하니 늘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이번에는 희고 붉은 연꽃과 쑥 자라난 공룡 친구 양치류 식물들을 보았고 광릉숲에 살았던 크낙새랑 오소리랑 너구리, 호랑이 등 여러 야생동물들을 박제와 모형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비가 언제든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지만 어린이학교에서는 금요일마다 대청소를 합니다. 점심을 먹은 후 자유시간을 보내다가 종이 울리면 각자가 자신이 공부하는 교실, 혹은 자신이 담당할 구역으로 가 할 일을 하기

배움과 가르침

시작합니다.

1학년들은 고사리같은 손으로 정리하고 청소하는데 과연 잘 할까 생각되지만 의외로 꼼꼼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끔 청소도구를 들고 순찰 아닌 순찰을 돌거나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섬의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내 동년 친구들에 이끌림으로 모두가 청소엔 동참합니다.

각 학년은 자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창문을 열고 의자를 책상에 걸친 후 바닥에 있는 먼지를 쓸어담는 사람,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사람, 공동구역을 정리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해 나갑니다. 가끔 균형이 맞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어느샌가 선생님들이 오셔서 해결 해 주십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 책상 밑에 있던 지우개 가루, 신발장과 발판 밑에 있던 먼지들을 털어내면 마음에 있던 답답함까지 쓸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공간을 청소하고 가꾸는 어린이학교입니다.

< 교사 : 권재만 >

### 멋쟁이학교

지난 토요일(7/9),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던 종강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모두 함께하니 참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니 서로의 얼굴에 웃음 꽃이 활짝 피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극은 20년 뒤 멋쟁이학교를 주제로 '그해 멋쟁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며 미래의 꿈을 생각하는 좋은 연극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멋쟁이학교 학기말 학생 면담이 있었습니다. 36명의 멋쟁이들이 한 사람씩 모든 선생님과 만나 한 학기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중심있는 삶의 태도,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멋쟁이들이 되도록 선생님들은 칭찬과 격려, 질책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다음주는 월요일 저녁에 등교하여 화요일부터 종강여행을 갑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교사 : 박예나 >

## 밭으로 오세요

아침 6시. 험레벌떡 일어나 밭으로 달려갑니다.

상추와 썩갓 등 수명을 다한 작물들을 정리하고 새로이 밭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작업하기로 한 날입니다.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 모기에 물릴 것을 대비해 단단한 갑옷을 입고 상추밭으로 고고!! 아니나 다를까 벌써 몇몇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밭에 있는 풀을 뽑고 계십니다.

비가 많이 온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미 밭은 흙투성이요. 아침이라도 장마 중간의 무더위라 땀이 비 오듯 합니다. 작업지시랄 것도 없이 바로 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크게 자라 있는 풀들을 뽑아 나갑니다. 다행히 비가 온 뒤라 풀은 잘 뽑히는데 뿌리에 흙이 너무 많이 딸려와서 팔에 느껴지는 무게는 풀이 아니라 돌덩이를 뽑는 듯 합니다. 아이고 팔이야!!

한참을 일하다 보면 '간식 먹고 합시다~'라며 흰 머리의 간식 요정님께서 맛있는 간식을 주십니다. 일 중간에 먹는 간식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요~~ 시원한 음료와 달달한 과자로 당을 충전하고 다시 밭으로 갑니다.

2차전에 들어가려는 찰라. 잠을 완전히 몰아내지도 못하고 급하게 달려온 하민이가 보입니다. 늘 공동체 일에서 거뜰히 자기 몫을 하는 일꾼 중에 일꾼입니다. 자기 손보다 큰 작업용 장갑을 끼고 허리까지 오는 풀들과 줄다리기를 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진정한 섬김을 봅니다. 이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당근 뽑기라는 행운을 주십니다. 실하게 자라 준 향 짙은 당근을 썩썩 뽑아내니 신이 납니다. 추수는 언제나 수확물 외에도 커다란 기쁨을 함께 선물합니다.

시원한 그늘 원두막에서 갓 뽑은 흙이 덜 닦긴 당근을 함께 나눠 먹으며 작업을 마칩니다. 땀에 젖고 진흙에 젖고 행색들은 다 엉망이지만 얼굴은 다들 환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일치감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깔끔히 정리된 밭을 보며 가슴 뿌듯해하며 식구들의 얼굴을 봅니다. 함께 했기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지극한 행복입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함께 일하는 공동체 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공동체 밭으로 오세요!!!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민수기 29장 1-6절

인도 : 이어진 전도사

기도 :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 총기난사와의 싸움 >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시카고 교외에서 22세 백인 남성이 축제 관람객들을 겨냥해 총을 무차별 난사해 최소 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에만 현재까지 1만72명이 총기난사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사라지게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도록 기도합니다.

###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오두막 공동체 >

- 1) 생태자립마을 만들기가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 2)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들이 더 많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 3) 연해주와 북한 선교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합니다.

###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지체들을 위한 기도 >

- 1) 현재 학교들이 학기말 준비중. 마무리까지 인도하심 속에서 잘 마쳐지기를.
- 2) 장마전선 형성중,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 < 생활공동체 소식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공동체 마당의 느티나무 그늘에도 바람이 불지 않는 때가 왔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과 내리찍는 햇볕 속에서 밭 작물을 돌보는 식구들을 보면 감사의 마음이 절로 듭니다. 수시로 공동체 주변 풀과 나무를 다듬는 손길들로 밀림이 되는 불상사를 면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생활하는 식구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섬김을 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늘 기도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